

## 법 어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제28차 총회를 맞아, 세계 불교계 대표님과 불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WFB는 오랫동안 수승한 가르침에 따라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불교문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불교도의 메시지를 지구촌 곳곳에 전달해 왔기에 더욱 뜻 깊은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불교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기여해온 한량없는 역할이자 그 전통의 계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평등과 자비의 이념이 전해지고, 평화로운 가운데 새로운 문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듯이, 세계불교도우의회 총회는 이러한 불교의 역사적 사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전 세계 불자들의 올림픽이자, 평화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총회의 주제를 '생활의 불교화, 불교의 생활화'로 삼은 것은 올해로 창종 70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진각종의 창종 이념과 그 뜻을 함께하는 것이자, 향후 세계불교도들이 스스로의 삶과 인생의 가치에 담아야 할 화두라 할 것입니다.

불제자의 삶은 부처님께서 제시한 가치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우리의 생활을 통해 생생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출발하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출발하는 본연의 가치를 체득하게 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뚜렷한 의미들을 담아내고 한국불교 세계화에 크게 진력하고 있는 진각종의 창종 70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평화를 이루어 가는 방안과 실천을 모색하는 WFB 총회의 한국 개최에 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나아가 많은 세계인들이 걱정하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세계의 불교도들

이 이곳에 모여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남북의 화해와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항구적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제자들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평온한 세상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촌에 지혜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것이 어떤 삶과 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줄 것인지, 그 소중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총회를 위해 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성초 정사님과 통리원장 회정 정사님, 그리고 세계불교도우의회 회장 판 와나메티(Phan Wannamethee)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한마음으로 인연 맺은 소중한 공덕으로 나아가길 앞길이 환히 비춰지길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9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